

아비아를 위하여

Philips 전자 부장 김홍경

나는 아비아를 위하여 이 글을 쓴다. 힘찬 내일을 향하여 뛰는 아비아를 위해서, 눈을 감은채 글을 쓰고 있다.

1917년 11월 7일 레닌이 지도한 러시아의 무산케급의 혁명인 10월 혁명(十月革命 : October Revolution) 전후의 역사의 격동속에 놓여진 돈 코시크의 운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소용돌이속에서 사상적으로 고뇌하고 동요하는 주인공 그레고리 멜레호프의 생활자세와 유부녀인 약소나와의 숙명적인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 혁명과 휴머니즘의 문제를 장대한 서사시적 스케일로 엮은 러시아문학의 걸작으로서 1965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이상은 러시아의 솔로호프(M. G. Sholokhov)가 지은 장편소설 《고요한 돈강(Don 江)》의 줄거리다. 전부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926년에 착수하여 1940년에 걸쳐 완성되어 간행되었다.

소련의 소설가 솔로호프(1905 ~ 1984)는 우크라이나 태생이었으나 그의 일생을 통하여 주로 돈 강 주변의 카자흐의 생활을 절실하게 묘사했다. 주요 작품에 《인간의 운명》, 《고요한 돈강》 그리고 《개간

(開墾)된 차녀지》 등이 있다.

돈강은 소련의 남서부에 있는 강이다. 모스크바 남방의 중앙아시아의 고지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서 아조프 해(Azov 海)로 흘러 들어간다. 하구 부근에 로스토프시(Rostov 市)가 위치하고 있다. 불가와 돈 운하로 불가강(Volga 江)에 연결되는데, 길이는 1,970km나 된다.

나는 계속 눈을 감은채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비아(Abia)는 메세니아(Messenia) 지방에 헤라클레스(Hercules)의 신전을 세운 유모(乳母)였다. 메세니아는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Peloponnesus) 반도 남서부에 있었던 고대의 지방인데 아카디아(Arcadia)의 남쪽으로 고대에는 도리스인의 식민지였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헬라클레스는 그리스 신화중에서 최대의 영웅으로 꼽힌다. 제우스와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났다. 여신 헤라의 미움을 받아 박해를 당했으며, 사촌 동생의 노예가 되어 10년간 고행하는 도중 사자사냥과 괴물퇴치 등 12가지의 어려운 일을 해냈다. 후에 아내의 고통으로 죽게 되었으나 승천하여 신들과 친구가 되었다고 한다.



밤이 깊었다. 사방이 파과하다. 눈을 반쯤 떠보았다. 독일로 가 보았다.

괴테가 지은 서사시 《헤르만과 도로테아》(Herman und Dorothea)가 있는데, 1797년에 완성되었다. 청년 헤르만과 프랑스혁명의 난민 도로테아의 이름답고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청순한 사랑을 통하여 목가적(牧歌的)인 평화와 혼란기에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시민의 이상(理想)을 잔잔하게 묘사하였다.

이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읽었던 《유충렬전(劉忠烈傳)》을 회상해 본다.

조선조 후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작자 미상의 군담소설(軍談小說)이다. 국가와 군주에 대한 충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아버도 임진 병자양탄 이후에 작품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주인공 유충렬은 정한담(鄭寒潭)의 모함을 입어 아버지는 귀양가고 어머니를 모시고 쓸쓸히 집을 떠난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중도에서 도적을 만나 서로 뿔뿔이 헤어졌다. 다행히 강희주의 구원으로 목숨을 건졌는데, 그후 그의 시위가 되었다. 강희주는 임금에게 상소하여 악랄한 정한담을 탄핵하였으나 도리히 모함을 받고는 귀양을 가게 되고 집안은 다시 유리분산(流離分散)하여 표박(漂泊)하게 되었다. 그후 유충렬은 도승(道僧)을 만나 무술을 닦았다. 그런데 오만한 정한담이 자기의 세력을 믿고 모반하자 그를 쳐 나라를 구출하였다. 유충렬은 그 공으로 높은 벼슬을 받고, 한편 사방에 흩어진 가족을 모아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영화를 누리었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나라와 임금에 충성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전쟁이야기 곧 군담소설이다. 구소설의 한

형태로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한 소설이다.

아버야! 군담소설에 대하여 좀 더 얘기하련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한 고대소설이라는 것은 이미 이야기했다. 《장바록(懲慈錄)》과 같은 실전담류(實戰譚類)와 《임진록(壬辰錄)》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소설화한 역사군담류가 있다. 여기서 《유충렬전》은 가공적 영웅을 그린 창작군담류에 속한다.

당시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중국소설이 물밀듯이 많이 유입되었는데, 그때까지 무미건조한 경서(經書)에 식상한 독자들은 재미있고 특히 해괴엔딩으로 끝나는 비화(奇話)와 일화를 담은 군담소설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였다. 군담소설에는 위에 든 작품외에도 《임경업전(林慶業傳)》과 《조웅전(趙雄傳)》 등이 있다.

아버야!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련다.

헤밍웨이가 지은 장편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For Whom the Bell Tolls)는 1940년에 발표되었다. 헤밍웨이가 중군기자로 에스파냐 내란에 파견되었을 때 취재한 내용을 소재로 한 것이다. 교량 폭파의 임무를 띠고 에스파냐내란에 참전한 미국인 로버트 조단이 게릴라부대를 지휘하던 72시간 동안의 극적이고 숨막히는 이야기이다. 특히, 인간성이 무참하게 짓밟힌 마리아의 영혼을 구제해 주는 지순한 사랑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일을 당하면 재빨리 처리하는 손바람이 나는 것이다. 도대체 종은 누구를 위하여 울리나? 견사 생풍(見事生風)의 미덕을 살려야지, 종은 바로 아버야를 위해 울리고 있다.

